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10. 17.(금)

정부, 의료용 제품 분야 미(美)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

- 美 의료용 제품 품목관세 부과 대비 정부 의견 적극 피력 -

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**수입 의료용 제품*** **국가안보영향조사**에 대한 **정부의견서**를 10월 16일(미국 현지시간) 제출했다.

* ①개인보호장비(Personal Protective Equipment), ②의료 소모품(Medical Consumables), ③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(Medical Equipment, Including Devices)

미국 상무부는 9월 2일(미국 현지시간) **美 무역확장법 제232조**에 의거해 **의료용 제품 등 수입**에 대한 **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**한다고 발표했으며, 조사절차에 따라 9.26~10.17까지 **서면의견서를 접수**한다고 밝힌 바 있다. 이에 따라, **정부**는 **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**에 관한 **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.**

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**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,** 오히려 **미국의 경제·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**하는 만큼 **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**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❶ 양국의 의료기기 무역구조

한국의 **대미 의료기기 교역**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**20~30억 달러 수준**이며, **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,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**로, **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***임.

* 대미(對美) 의료기기 무역수지 : ('22) △59 → ('23) △567 → ('24) △601 백만 달러

❷ 미국 보건안보 기여와 공급망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

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**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**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**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**함.

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**'WHO 우선순위 의료기기'**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**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**한 바,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**'생산 이원화 전략(Dual Sourcing)'**의 **최적 파트너**가 될 것임.

❸ 상호 이익 증진 및 미래 협력 강화

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**시장 확산**을 위한 **전략적 거점**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**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**(AI 등)은 **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** 및 **보건안보 강화**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.

※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 예정

한편 **보건복지부**와 **한국보건산업진흥원**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**경쟁력 제고**와 **피해 최소화**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**'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'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.**

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**대표 이메일**(tariff@khidi.or.kr)과 **전화**(☎043-713-8551)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(https://www.khidi.or.kr)를 통해 **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**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 **산업통상부**는 **「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」**(9.3., 관계부처 합동)을 통해 **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,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, 글로벌 시장진출**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**(KOTRA)에서 운영중인 기존 '관세대응 119(통합상담창구)'를 범정부 협업체계인 **'관세대응 119 플러스'로 확대 개편**(9.22)하여 수출제품의 美

관세율·HS코드 분류,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하여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,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**美 관세조치 종합 대응을 위한 '현장밀착형 지원체계'를 가동**하고 있다.(대표번호 1600-7119, 홈페이지 http://kotra.or.kr)

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"미국 정부에서 **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**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**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**된 상황으로, **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**를 위한 **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**" 라며, "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**범정부 통상 협상**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, **관세 부과 동향**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, 판로개척 등 **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**해 나가겠다." 라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	국제협력관 통상개발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승현	044-202-2370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희	044-202-2373
	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	책임자	과 장	임강섭	044-202-2960
		담당자	주무관	최우석	044-202-2967
산업통상부	첨단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	책임자	과 장	최광준	044-203-4290
		담당자	서기관	김혜원	044-203-4295
		담당자	사무관	성소윤	044-203-4291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
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